

1. 중국 현대사 속의 지식인

중국 현대사에서 지식인은 지식인이 걸어 온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전통사회에서 중국 지식인은 사농공상의 으뜸으로서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기반으로 학술과 중앙·지방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청말 전통왕조가 위기에 처하고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중국 지식인의 이데올로기적·신분적 기반은 한꺼번에 흔들렸다. 과거제 폐지 이후 중국의 전통적 지식인은 점점 퇴장하고 신식교육을 거친 근대적 지식인이 새롭게 등장했다. 지식인의 사회진출 경로도 관료나 학자 이외에 매관·상인·출판인·법조인·의사·막료·군인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 중 일부는 유명대학 교수나 작가, 출판계의 거물로 남부럽지 않은 지위를 누렸지만 대체로 이 시기 지식인은 전반적으로 그 전 시대에 비해 ‘주변화’되었다. 민국시대 개막 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지식인은 정치·군사적 격랑 속에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하던 시절에는 정치적 선택을 강요당했고 일본과의 전쟁이 벌어진 1937년 이후에는 학술보다는 생활에 관심을 갖는 지식인이 많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는 마오쩌둥의 반지식인 정책으로 고초를 겪었다. 마오쩌둥은 일찍이 지식인을 혁명에 동원했지만 근본적으로 “지식인은 그들 자신이 가장 무식하고 노동자·농민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毛澤東, 1942, 315)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지식인은 마오쩌둥에게 적극 협력하거나 학술의 영역으로 침잠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했든 볼 수 있는 책과 할 수 있는 말은 제한되어 있었고 상당수가 수없이 반복되는 크고 작은 정치운동 속에서 박해 받고 지식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며 생애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식인들은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애써왔다. 민국시대 초기 국민성 개조를 부르짖고 사회의 절망적 상황에 맞섰던 루쉰, 신문화 운동의 주역 천두슈, 후스 리다자오, 민주동맹의 대표자 뤼룽지 등이 그들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문화대혁명까지 극심한 통제와 시련이 지나고 1980년대부터 중국 지식인의 숨통은 다시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틈타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울러 그 전에 격렬히 비판 받던 전통사상이 재평가되고 새로운 서양사상이 유입되어 지식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 1980년대 초반은 중국지식계의 봄이었다.

현대 중국에서 지식인 재생산 체제는 1977년 대학입시가 재개되면서 복구되었다. 아울러 개혁개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지식인의 활동에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서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지식인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사상공간에서도 교조적 마르크스주의 일변도의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문혁 시기 봉건사상이라 배척받던 전통 사상이 재평가되었고, 실존주의·해석학·현상학 등 다양한 서양 이론들이 다량 유입되어 지식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 중국인들은 이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고 소화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외국에 시찰단을 보내는 동안 지식인들은 새로운 시대의 좌표를 제시하고 해석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비록 국가의 통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 지식인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정치에 종속되어 있던 지

난날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분위기에서 학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그리고 청년세대로서 문혁을 겪고 1977년부터 재개된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간 당시의 청년 지식인들은 현재 중견지식인이 되어 다양한 학술적·사회적·문화적 목소리를 내며 중국의 현실에 개입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이 현실과 어떻게 조응하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따라 어떤 지형을 형성했는지에 주목한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지식인들은 담론·실물 차원에서 각기 다른 그룹을 형성하며 서로 대립·협력·경쟁하며 지식인 사회를 형성했다. 그리고 지식인 사회는 사회적 상황, 이론적 유행에 조응하기도 하고 그것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식/지식인은 그 자체가 연구대상인 동시에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중국을 파악하고 성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류의 수많은 물음에 대한 해답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누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목소리를 내며 어떤 중국(혹은 세계)을 그려왔는지 그리고 그 주체들과 내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아보겠다.

2. 80년대: 지식인사회의 복원과 성장

1) 휴머니즘 마르크스주의의 등장과 좌절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우선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부에서 일어났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 ‘인도주의(人道主義)’ 혹은 ‘휴머니즘’이라고 알려져 있다.(본 발표에서는 휴머니즘이라 부르겠다.) 마르크스주의가 휴머니즘을 떠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전까지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문화대혁명 시기까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는 정치경제학적 성향을 농후하게 드러내면서 과학적 세계관, 계급성 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휴머니즘 마르크스를 제기했던 대표적인 지식인은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와 문화부에서 부부장을 역임하고 중국 문련 주석을 지낸 문예인 저우양(周揚, 1908~1989)이다. 그는 “우리가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목적이자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은 인간이다. 생산도 계급투쟁과 인민민주주의 독재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다.”(周揚, 1983)라 말하며 국가전략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요소도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 이데올로기, 경제결정론 등이 아닌 인간성·소외·휴머니즘 등이라고 주장했다. 휴머니즘 마르크스주의의 또 다른 대표주자는 『인민일보』 부총편집장을 지낸 베이징대 철학과 출신 이론가 왕뤄수이(王若水, 1926~2002)이다. 왕뤄수이는 서유럽 마르크스주의와 아담 샤프의 동유럽 마르크스주의,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인간이라고 여겼다. 그는 휴머니즘을 ‘인간의 지위·가치·존엄·행복을 긍정하고 신(神)중심주의와 노동자를 착취하는 야만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으로 이해하는 한편, ‘부르주아 계급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계급성을 은폐시키고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이것과 구별되는 ‘마르크스주의적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런 휴머니즘 성향은 당내 주류 인사의 비판을 받으면서 대립선이 형성되었다. 당시 인민일보사 편집장이었던 후차오무(胡喬木, 1912~1992)는 저우양이나 왕뤄수이의 주장을 ‘잘못된 사조’라며 공격했다. 그는 휴머니즘 논자들이 인간을 추상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인간을 모든 사회관계의 앙상블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을 위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잘못된 사조의 근원으로 대외 개방에 따라 유입된 서구 사상을 지목했다. 결국 후차오무의 비판에 부딪혀 휴머니즘적 성향의 성장은 차단되고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부의 쇄신 노력은 좌절되었다.

2) 민주개혁의 목소리

1980년대 중국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1980년대 초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1978년 11월부터 일어난 ‘시단민주벽’ 운동이다. ‘시단민주벽’ 운동은 베이징의 시단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뒤에 설치된 200미터 정도의 담벼락에 중국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언론 자유, 민주주의 모색 등의 견해를 담은 대자보들이 자유로이 나붙으며 진행된 운동이다. 이 때 웨이징성(魏京生, 1950~)의 『탐색』, 쉬원리(徐文立, 1943~)의 『45논단』, 왕권타오(王軍濤, 1958~)의 『베이징의 봄』 등 민주주의 잡지들이 발행되었다. 이 잡지의 주도자들은 80년대에 중국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한 인물들이다. 공산당 내에서도 분권, 당정분리, 사법 독립, 언론 독립, 기업관리 체제 개혁을 내건 개혁파가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1980년에 민주화의 열기가 덩샤오핑의 집권에 대한 의구심으로 향하자 덩샤오핑은 그 전에 대자보 붙이기를 지지했던 태도를 바꾸어 운동을 진압했다. 이렇게 80년대의 첫 번째 민주화 열기는 꺾이고 말았다.(왕단, 2013, 295~306)

그럼에도 정치개혁의 의지는 이어졌다. 1986년 4월 『중국사회과학』지에서 비공개 정치 토론회를 개최했고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1970,80년대에 민주화 운동으로 여러 차례 투옥된 천쯔밍(陳子明, 1952~), 1976년 저우언라이를 추모하며 일어난 4월 5일 톈안문운동에 참여한 왕권타오(王軍濤, 1958~)와 민치(閔琦), 왕룬성(王潤生), 옌자치(嚴家其, 1924~), 쑤사오즈(蘇紹智, 1923~), 위하오청(于浩成), 궁샹루이(龔祥瑞, 1911~1996), 두루지(杜汝輯), 량즈(梁治平), 우자샹(吳家祥), 천자오강(陳兆綱)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5월에 다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중앙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민주화에 대한 토론 열기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체제 내 개혁파와 민간 민주인사 간의 교감도 차츰 형성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본래 중국경제학단체연합회가 발행하던 『경제학주보』에 천쯔밍, 왕권타오가 결합했다. 이에 따라 이 신문은 전문적 경제지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와 정치개혁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사상계와 대학에 널리 영향을 주었다. 정치 개혁의 요구는 89년까지 이어졌는데 이 해 3월부터 정치 민주화, 정치범 사면을 요구하는 지식인들의 서명운동이 연이어 일어났다. 여기에는 많은 지식인이 전공과 세대를 불문하고 폭넓게 참가했다. 여기서는 마르크스주의자였다가 전향해서 중국공산당을 비판하고 민주와 과학을 주장한 원로 과학자 쉬량잉(許良英, 1920~2013)의 역할이 컸다. 그는 지식인 서명운동을 벌여 주변의 유력 지식인들을 동참시켰다.(왕단, 2013, 340~356)

반면 비슷한 시기인 1986년에는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민주화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권위주의’ 집단도 등장했다. 신권위주의 진영의 대표주자는 베이징의 장빙주(張炳九)와 우자샹, 상하이의 샤오궁친(蕭功秦, 1946~) 등이다. 이들은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체제 개혁의 진전과 협조」, 「급진 민주주의인가, 온건 민주주의인가」, 「신권위주의 연구개요」, 「신권위주의: 고통스런 진퇴양난의 선택」 등에서 자신의 신권위주의적 견해를 제시했다. 신권위주의자들은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고 부패가 만연한 중국에는 현실적으로 신권위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권력이 집중되어야 하며 경제개혁과 정치민주화를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이다. 물론 신권위주의에 대한 반박도 여기저기서 제기되었다. 쉬량잉은 신권위주의가 위안스카이를 지지하고 왕정복고와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주안회와 비슷하다고 비판했고, 정용넌(鄭永年)과 웨린장(岳麟章)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권위주의적 권력이 한번 수립되면 자리를 내어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밖에 친샤오잉(秦曉鷹), 왕이주(王逸舟) 등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신권위주의에 반박했다. 신권위주의 토론에서 나온 주된 주장들은 1989년에 출판된 『신권위주의 - 개혁의 이론적 강령에 대한 논쟁』에 모아졌다.(馬立誠, 2012, 20~23) 신권위주의 진영은 덩샤오핑 체제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며 당시의 민주화 분위기와 대립했다.

3) 풍성한 신지식의 향연: 문화열

1980년대 중국의 지식 자원을 풍성하게 만든 움직임은 바로 ‘문화열(文化熱)’이다. 문화붐 혹은 문화열풍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80년대 문화토론(혹은 문화논의)’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진행된 일종의 집단적 학술운동이다. ‘문화열은 교조적 마르크스주의를 벗어나서 다양한 지식자원으로부터 중국이 가야 할 길과 중국’에 필요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문화열은 각기 다른 지식 자원과 가치 지향을 지닌 세 그룹에 의해 진행되었다.²⁾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셋 중 시간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그룹은 “미래를 향하여(走向未來)” 그룹이다. 이 그룹의 리더는 베이징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당시 중국사회과학원 과학철학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던 진관타오(金觀濤, 1947~)와 베이징대 중문과를 졸업한 그의 부인 류칭핑(劉青峰)이다. 이들은 1984년부터 쓰촨인민대학 출판사를 통해 단행본시리즈 “미래를 향하여”를 펴냈고 1986년부터 잡지 『미래를 향하여』를 발행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역사학, 경제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등을 아우르는 총74종의 저·역서가 이 시리즈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계몽주의의 입장에서 시스템론·사이버네틱스 등 자연과학적 방법을 역사학에 응용하여 중국사를 해석하는 진관타오·류칭핑의 입장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그룹의 성향은 통상 과학주의라고 규정된다. 물론 진관타오·류칭핑의 관심은 역사 해석 자체에 있지 않다. 그는 전통시대부터 마오쩌둥 시대까지를 지배했던 의식구조의 성격을 동일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현대화를 위해서는 이들로부터의 탈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현대사를 설명하는 도식으로 한국에서도 널리 쓰이는 ‘구망의 계몽 압도’ 도식의 연원인 리쩌허우(李澤厚, 1930~)의 「계몽과 구망의 이중변주(啓蒙與救亡的雙重變奏)」이 잡지 『미래를 향하여』의 창간호에 실렸다. 이는 계몽주의 지식인 간의 현실적 교감과 교류를 보여준다. 이 활동을 통해 진관타오·류칭핑은 80년대 계몽운동의 대표주자로 우뚝 섰다. 또한 현재에도 학문과 인생의 동반자로서 대만에서 학문연구를 통해 80년대에 제시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그룹은 중국의 전통철학을 전공한 원로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중국문화서원(中國文化書院)”이다. 이 집단은 량수밍(梁漱溟, 1893~1988), 펑유란(馮友蘭, 1894~1990), 장다이넨(張岱年, 1909~2004), 탕이제(湯一介, 1927~) 등 원로 중국전통철학자들이 발의하고 두웨이밍(杜維明, 1940~), 류수셴(劉述先, 1934~) 등 중국 밖에서 활동하던 중국전통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1984년 10월에 결성되었다. 구성원의 면면이 반영된 듯 이들의 주 관심사는 중국 전통 문화의 재평가였다. 대표적으로 장다이넨은 중국전통철학의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를 판별해서 전수를 계승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작업의 목적은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화와 결합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張岱年·程宜山 2006, 335)이었다. 이 그룹은 198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활동은 주로 중국문화에 관한 강연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고 중국 사회 내에서의 가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그룹은 여전히 중국 전통 연구자들의 주도 아래 현재까지도 명맥을 잇고 있다.

셋 중 가장 나중에 등장한 그룹은 “문화: 중국과 세계” 그룹이다. 이 그룹의 리더는 문혁시기 지식청년이었고 그 후 베이징대학교 외국철학연구소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간양(甘陽, 1952~)이다. 이 그룹의 활동 방식은 “미래를 향하여” 그룹과 유사하다. 명칭은 1986년에 간양이 편집주간이 되어 창간한 잡지 『문화: 중국과 세계』에서 유래했고, 간양이 이끄는 편집위원회 집단은 1985년부터 삼련(三聯)서점을 통해 ‘현대서방학술문고(現代西方學術文庫)’, ‘신지문고(新知文庫)’ 등 연구시리즈를 발간했다. 이 시리즈들에는 실존주의·현상학·해석학 등 현대유럽의 지적 흐름을 반영한 저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이데거·사르트르·아도르노·푸코·데리다·리퀴르·니체·카시러 등이다. 1987년부터는 잡지 『문화: 중국과 세계』를 발행해서 동서양 문화를 연구한 글을 실었다. 간양 자신도 당시 카시러의 『인간이란 무엇인가(An Essay on Man)』를 번역하고 해설했다. 이 책이 판매부수 20만부를 달성하며 간양은 중국 문화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다른 한편으로는 막스 베버·다니엘 벨·마르쿠제·벤야민·아도르노·하이데거·푸코에 관한 소장학자들의 연구논문을 모아 내면서 일관되게 서양 현대철학을 소개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간양은 이 일련의 활동의 의도가 근대를 먼저 경험한 서양의 경험을 배우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당시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근대를 실현하면서도 근대의 문제에 대비하자는 ‘이중작전’의 선상에 있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처럼 문화열에서는 다채로운 서양사상과 부활한 중국전통사상이 등장해서 중국의 지식 자원을 풍요롭게 했다. 그리고 각 그룹의 활동은 학술연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현대화를 추진하던 당시 중국이 가져야 할 가치지향을 내놓았다. 그래서 서양의 근대를 제대로 배워서 계몽을 실현하자는 계몽주의의 입장(미래를 향하여), 전통문화를 재평가해서 현대화와 결합해서 중국의 부흥을 꾀하자는 입장(중국문화서원), 서양의 근대 경험이 준 교훈을 배워 근대를 추구하면서 근대의 문제점에 대비하자는 입장(문화: 중국과 세계) 등이 논의의 지형을 이루었다. 이들은 이론적 차원 뿐 아니라 가치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80년대의 지식계를 풍요롭게 했다.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의 경향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비판·토론을 했음은 물론이다.

한편 편집위원회와 잡지 필자의 구성은 개방성을 띠었다. 중국문화서원의 핵심인물 리쩌허우, 팡푸(龐樸, 1928~)는 『문화: 중국과 세계』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전통을 재평가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간양과는 성향이 달랐는데 사실 잡지의 지명도를 위해 명목상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었다. 또 『문화: 중국과 세계』는 간양 개인의 논설이나 총서처럼 단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서양의 문화를 주제로 한 글들이 비교적 개방적으로 실렸다. 그래서 평유란이나 청중잉, 위잉스 등 신유가들도 필자 명단에서 다수 눈에 띈다. 그밖에 리쩌허우의 경우, 계몽에 관한 견해는 『미래를 향하여』에 게재했고 현대신유가에 관한 글은 『문화: 중국과 세계』에 게재했다. 편집위원회 조직상의 교집합도 있었다. 예를 들면, 미학자 류둥(劉東, 1955~)은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생 신분으로 『미래를 향하여』와 『문화: 중국과 세계』 편집위원회에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 진관타오는 류둥을 통해 간양에게 통합을 제안했지만 문화적 견해 차이와 진관타오의 이론 수준에 대한 저평가를 근

거로 간양이 제의를 거절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과 일화는 세 지식인 집단이 각자의 표방한 지향과 학문적 주안점은 각각 달랐지만 학술지는 개방성을 띠며 정치적 기관지와는 다른 지식인의 성격을 가졌음 말해준다.

‘문화열’은 1989년 톈안먼에서 민주화운동이 진압된 후 끝을 맺었다. 『미래를 향하여』 편집위원회 고문 바오쥔신(包遵信, 1937~2007)은 학생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진관타오·류칭평은 89년 4월 홍콩중문대 중국문화연구소 천광정(陳方正, 1939~) 소장의 초청으로 6개월 예정 방문연구를 떠났다가 아예 돌아가지 못했다. 리쩌허우는 미국으로 망명했고 간양은 시카고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정치개혁의 요구가 당국에 의해 진압됨과 동시에 80년대 중국의 풍성한 지식과 담론의 향연이었던 ‘문화열’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열’이 지식인 사회에 남긴 유산은 상당하다. ‘문화열’에서 소개된 서양의 다채로운 이론과 전통사상은 당시 청년 지식인들의 사상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문화열에 당시 참가한 젊은 학자들은 현재 중국 지식계의 원로이거나 중견으로 성장해서 활약하고 있다.

3. 90년대: 체제전환의 본격화와 그에 따른 갈등

1) 89년의 후유증과 재기의 움직임: 『21세기』와 『학인』

1990년대 중국의 지식계는 톈안먼 사건의 여파와 시장화 개혁의 본격화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 홍콩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 진관타오·류칭평은 홍콩중문대학 총장으로부터 학교에 계속 남아 연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제안을 받아들여 이 대학 중국문화연구소에서 학술잡지 창간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다. 준비과정을 거쳐 1990년에 ‘중국의 문화건설을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잡지 『21세기』를 창간했다. 편집장은 류칭평이 맡았으며 편집위원회에는 발행지인 홍콩의 인사들 뿐 아니라 대만 출신으로서 당시 시카고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리어우판(李歐梵, 1942~)을 비롯해서 그와 인연을 맺고 있던 재미 중국인 지식인들도 합류했다. 또한 ‘문화열’ 3대 집단의 핵심 인물들도 참여했다. 중국문화서원의 핵심인물 탕이제, 광푸, 리쩌허우, ‘문화: 중국과 세계’ 발기인 류사오핑, 간양,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성원 쉬지린(許紀霖, 1957~), 류둥이 그들이다.(劉靑峰, 2000) 이로써 『21세기』는 다양한 활동거점, 전공, 성향을 지닌 지식인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다. 물론 편집 방침에서도 사상적 경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경향의 글을 한 곳에 모았으며 글의 장르도 시사평론과 연구논문, 서평 등으로 다양했다. 진관타오는 『21세기』가 ‘대륙보다 정치적 분위기가 자유로운 홍콩이라는 공간에서 탄생한 정치적 제약에서 벗어난 지식인만의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말했다.(조경란, 1997, 269) 그리고 “상대적으로 언론 자유가 보장된 환경에서 이론적·역사적 토론을 위한 결정적인 공간을 제공했으며, 대륙과 해외 지식계를 연결하는 교량 구실을 했다”고 평가된다.(왕차오화, 2006, 30)

이 무렵 대륙에서도 80년대의 실패를 평가하고 좌절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91년 말의 『학인(學人)』 창간이 그것이다. 『학인』의 창간과 발행은 1989년 6월 이후 잠시 홍콩에 갔다 돌아온 왕후이(汪暉, 1959~)를 비롯한 천평위안(陳平原, 1954~), 왕서우창(王守常, 1948~) 등 소장학자가 주도했다. 창간의 발상은 1989년 겨울 『독서』 편집위원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자리에 함께한 지식인들은 아직 톈안먼 사건의 후유증에

서 벗어나지 못해 좌절과 무기력의 상태에 있었다. 이에 왕후이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현실 문제를 직접 논하지는 못하더라도 학술연구는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근대사상 연구와 학술의 정리를 골간으로 하는 엄밀한 학술연구를 통해 80년대의 실패를 평가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의 의지는 때마침 베이징을 방문했던 일본의 기업가 다카즈쓰 미쓰요시(高筒光義)와 다카하시 노부유키(高橋信幸)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현실화되었다. 당시 이 일본인들은 80년대 문화열을 접한 뒤로 중국 지식계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국제우호학술재단 주비위원회를 결성했고 좌담에 참가한 지식인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창간된 잡지가 바로 『학인』이다. 아울러 『학인』 창간 초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학인』 관련자들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교류활동을 했다. 『학인』은 후원기업이 파산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2000년까지 약 10년 동안 모두 15호가 발간되었다. 왕후이는 『학인』이 정치성에 쉽게 매몰되지 않는 독립적 지식인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학인에 실린 글은 시사평론과는 분명히 달랐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당시 『학인』이 젊은 지식인에게는 활동과 성장 공간이었으며 그 자신도 당시 수행한 중국근대사상연구가 훗날 현실을 비판하는 내재적 동력이 되었다고 자평한다.(왕후이, 2003, 29) 실제로 『학인』에서는 오늘날 중국 학계에서 대가가 된 학자들의 초기작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등장한 『21세기』와 『학인』은 80년대에 성장한 지식인들이 1989년 톈안먼 사건의 좌절을 딛고 일어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잡지는 1990년대에 중국 지식인에게 새로운 활동과 성장의 공간이었다. 또한 두 잡지의 발간을 통해 중국 지식인의 네트워크는 80년대와 다른 양상으로 재편되었고 문제의식도 변화·발전했다. 이는 자유로운 학술연구에 뜻을 둔 학교관리자, 기업인의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 문화에 침투한 시장과 그에 대한 반응: 인문정신 논쟁

1990년대에는 사회/국가의 시장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학술과 문화 영역에 더 깊이 침투했다. 그래서 중국 지식인들은 시장화 자체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문화현상과 직접 대면할 것을 요청받았다. 즉 80년대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벗어난 다양한 이론을 모색하는 시기였다면 90년대는 현실과의 대면이 더욱 절실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초 문화영역에 침투한 시장화에 대한 대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문정신 논쟁’이다. 이 논쟁은 1993년 왕샤오밍(王曉明, 1955~)을 주축으로 한 몇몇 상하이의 문학연구자들이 좌담회를 갖고 「광야의 폐허: 인문정신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상하이문학』에 게재하면서 촉발되었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당시에 인기를 얻던 대중문화의 가벼움을 지적하고, 진지한 문화, 인문정신의 쇠퇴를 걱정했다. 장이머우의 영화와 왕쉬의 소설을 문제 삼은 이 대담은 여러 지식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관련 대담이 수차례 이어졌다. 대담의 내용은 1994년 3월부터 7월까지 『독서』에 실렸다. 대담의 제목을 살펴보면, ‘인문정신,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인문정신의 자취를 찾아서’, ‘도통(道統), 학통(學統), 정통(政統)’, ‘우리에게는 어떤 인문정신이 필요한가?’, ‘문학세계, 해체되는가? 구축되는가?’이다. 이 토론들에서는 인문정신 개념 및 타당성, 인문정신의 요소, 인문학자의 위상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문정신을 부정하는 견해도 등장했다. 일찍이 정부로부터 우파로 낙인 찍혀 유배생활을 했던 작가 왕명(王蒙, 1934~)은 문화대혁명을 초래한 것이 도덕성과 이상을 지나치게 추구하던 과도한 인문정신이라 주장하며 인문정신의 상실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

장했다. 그리고 인문정신 상실론자들이 걱정하듯 시장이 인문정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고 반박했다.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모더니스트 장이우(張頤武)는 거대담론을 거부하는 입장에 서서 인문정신 상실론이 거대담론을 지향하지만 실은 다른 담론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담론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문정신 상실론의 추상성을 지적한 견해도 있다. 1996년 진다칭(靳大成)과 타오둥펑(陶東風)은 인문정신 상실론이 문화현상의 근저에 있는 사회적 현실, 즉 시장화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왕후이 역시 사후에 같은 맥락에서 인문정신 상실론의 추상성을 지적했다.

인문정신 상실론자들의 문제의식은 대중문화의 발전에 따른 지식인의 주변화에서 시작했다. 인문정신의 요소로 제시된 도덕주의, 도통, 학통 등 보편주의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본래 지식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면서 지식인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요소였다. 따라서 보편주의, 도덕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자연히 인문정신 상실론을 비판했다. 그리고 인문정신 상실론자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던 대중문화의 배후에 있는 시장화라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웠다. 시장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문정신을 옹호하는 이들은 아직 현실을 직접 파악하고 대처할 새로운 이론을 준비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문정신 논쟁은 시장화 심화의 초기 단계에 중국의 지식인들 논의는 아직 사회적 의제가 아닌 정신 차원의 의제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 체제전환에 대한 직설적 논의와 지식인의 분화: 자유주의 논쟁

1990년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지식인 그룹의 분화를 보여준 것은 1997년부터 본격화한 ‘자유주의 논쟁’이다. 논쟁의 도화선이 된 글은 왕후이가 1997년 『천애(天涯)』에 발표한 「오늘날 중국의 사상적 상황과 근대성 문제」다.³⁾ 이 글에서 왕후이는 현대중국의 사상 동향을 개괄하던 중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계몽주의가 직면한 것은 이미 자본화된 사회이다 …… 계몽주의의 추상적 주체개념과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명제는 마오쩌둥의 사회주의를 비판할 때는 거대한 역사적 능동성을 발휘하였지만 자본주의 시장화와 현대화 과정 자체의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는 창백한 무기력을 드러낸다.”(汪暉, 1998, 16) 이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지점이 자유주의자들을 불쾌하게 했다. 하나는 중국이 자본화된 사회라는 점과 계몽주의가 무기력하다는 점이다. 물론 글이 발표된 후 논쟁이 즉각 진행된 것은 아니다. 리톈(李陀)가 『독서』 1997년 12월호에 「논쟁을 수면위로」라는 글에서 공개적 논의를 촉구했고, 주쉐친이 『남방주말』 1998년 연말 특집판에 「1998, 자유주의 언설」에서 발표했다. 주쉐친은 이 글에서 “1998년 중국학술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자유주의의 학문적 입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한다는 점”(朱學勤, 1998, 471)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현재적 가치를 적극 선전하는 한 편 당시 제기된 자유주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 후 주쉐친을 비롯한 쉬유위(徐友漁, 1947~), 런젠타오(任劍濤, 1962~) 등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왕후이에 의해 촉발된 자유주의 논쟁의 쟁점을 점검하고 자유주의 비판자들을 ‘신좌파’라 명명하며 비판했다.

논쟁의 주제는 중국사회 문제의 근원, 시장에 대한 입장, 민주주의 시행 방안 등으로 개괄된다. 중국의 문제가 자본주의 시장화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반대로 문제는 건전한 시장이 확립되지 않은 데 있다고 반박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발’(국가)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자본주의의 수사를 통해 계몽을 비판하는 방식을 문화대혁명 시기 문혁 세력이 반대파를 비판했던 방식

과 유사하다며 자유주의 비판자들에게 문화대혁명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방안문제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은 또한 신좌파에서 내세우는 직접민주주의가 정치적 급진주의이며 그것은 스탈린주의나 문혁시기의 대중운동의 선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신좌파로 지목된 간양은 이런 견해에 대응해서 ‘자유주의, 귀족의 것인가? 평민의 것인가?’라고 질의한다. 그는 현대 중국의 자유주의는 곧 평등과 급진을 반대하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이며 그것은 소수·특권층만의 자유를 초래할 것이라 비판한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자유와 경쟁만을 내세우며 인민의 정치적 권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중국에서 회자되는 자유주의는 실제로는 보수주의가 자신을 내세우는 수사라고 지적한다. 그 밖에 논쟁의 당사자들은 정치·경제·학술·역사(특히 문혁에 대한 평가)·철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전 방위적 공방을 주고받았으며 논쟁은 2001년에 정점을 찍었다.

이미 오늘날 중국지식인의 지형을 논할 때 상용어가 되어버린 ‘신좌파와 자유주의’라는 말은 실은 자유주의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현재도 중국 내외에서 이 논쟁의 당사자, 그리고 그들이 관여한 단체나 매체들을 편의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좌파로 분류되는 왕후이나 간양, 추이즈위안(崔之元, 1955~), 왕사오광(王紹光, 1954~), 한위하이(韓毓海, 1965~) 등은 신좌파라고 자처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대신 간양은 ‘자유주의 좌파와 우파’, 왕후이는 ‘비판적 지식인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변한다. 이들은 ‘신좌파와 자유주의’라는 수사에서는 은연 중 좌파를 마오쩌둥, 문화대혁명과 연관 지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자유주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자유주의 내부의 다양성도 무시한다는 것도 거부의 이유이다. ‘신좌파’는 1990년대에 가장 강력한 인상을 준 지식인 그룹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을 그렇게 부른 적도 없고 신좌파 노선을 천명하며 어떤 선언이나 정치적 선전을 하거나 단체를 결성한 적도 없다. 사실 ‘신좌파와 자유주의’라는 수사는 근대의 자유주의, 80년대 계몽에 정신적 뿌리의식을 두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계몽이 무기력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항변하고, 중단 없는 시장화 개혁을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신좌파’로 분류되는 지식인들은 역사인식이나 정치·경제적 견해에서 자유주의와 대립하며 일정하게 공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90년대 후반을 휩쓸고 갔던 자유주의 논쟁은 지식인들이 학술 영역을 뛰어넘어 중국의 체제전환을 한층 더 직설적으로 다루면서 체제전환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담론의 지형을 형성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 다른 측면에서 90년대 후반의 자유주의 논쟁은 80년대의 계몽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의 연장이자 구체화이다. 간양은 80년대에 이미 근대를 추구하면서 근대의 문제에 대비하자는 ‘이중작전’을 제기했고 왕후이는 80년대의 계몽을 성찰적으로 보면서 훗날 ‘근대에 반하는 근대’라는 수사를 내놓았으며 90년대에는 이제 정치·경제적 차원의 문제에서 시장경제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논쟁은 개혁개방 이후 줄곧 해외에서 제기되었던 중국 체제전환의 성격에 대한 물음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로 답한 것이기도 했다.

4) 중국적 자의식의 성장

1990년대에는 중국의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 1988년에 CCTV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황하의 죽음』(1988)은 서양을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서양은 중국인에게 배우고 따라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90년대에는

이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지식계도 이런 현상과 상호작용했다. 아울러 서양에 대한 편향을 넘어서 중국만의 것으로 자의식을 찾으려는 이들이 늘어났다. 우선 국제정세의 변화가 중국 내 반서구정서 형성을 조장했다. 중국위협론, 1993년 베이징올림픽 유치실패 등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중국인들을 자극했던 것이다. 반서구정서는 최근 『앵그리 차이나』를 발행해서 중국인의 반서양적 자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쑹창(宋强) 등이 대표한다. 중국인의 반서구정서는 집단적으로도 표출되었다. 최근의 예로는 2008년 티베트시위 이후 CNN 프로그램 진행자가 중국비하발언을 하자 올림픽 개최를 앞둔 전 세계의 중국인들이 일제히 데 집회를 열었던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런 정서의 뿌리는 1990년대 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서양적 정서의 대표자로는 최근 2010년 『앵그리 차이나』를 내놓은 쑹창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에 앞서 90년대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을 내놓으며 그 등장을 알렸다. 이런 흐름에 대해 쉬지린(許紀霖, 1957~)은 90년대는 ‘심리가 막 발육한 어린아이’의 상태, 최근에는 ‘성인으로 성장해서 싸움을 걸며 불쾌해하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쉬지린, 2013, 455~456)

다른 한편으로 90년대에는 전통적 지식과 최신의 서양 지식이 중국인의 자의식을 확립하는데 동원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통의 재조명과 복권은 80년대에는 원로 신유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중국문화서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활동은 90년대에도 이어졌고 상당히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중국의 전통은 ‘국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당시의 전통부흥 움직임은 ‘국학열(國學熱)’이라고 부른다. ‘국학열’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에 장다이넨을 비롯한 원로 학자들이 국학총서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엔 베이징대에 ‘중국전통문화연구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그 다음해엔 『국학연구』가 창간되면서 활동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1993년에는 이를 지지하는 베이징대 학생단체 ‘국학월’도 조직되어 국학 관련 강연에 1000여 명의 학생이 몰려들기도 했다. 베이징대 중국전통문화연구센터는 중국역사문화지식총서를 100권 출간했다. 국학 연구 집단은 미디어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93년에는 미국남해공사와 합작하여 ‘중화문화강좌’ 시리즈 100편을 촬영했고, 1995년에는 CCTV와 ‘중화문명의 빛’ 150집을 제작했다.(이철승, 2006, 506; 김수영, 2012, 242) 이런 국학 붐은 정부의 적극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국정부에게 전통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간 분야에서도 유교적 지식인들이 1994년에 『원도(原道)』를 창간하면서 국학열기에 부응하고자 했다. 편집주간은 천밍(陳明), 주한민(朱漢民)이 맡았으며 리쩌허우, 팡푸, 천라이, 두웨이밍 등이 고문을 맡고 다수의 중국전통 연구자들이 학술위원에 합류했다. 이 잡지에는 유학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문화사상전통을 논한 글들이 수록되어 문화보수주의를 대변했다. 아울러 유교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전통부흥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닐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유교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유학의 본질을 정치라고 보고 유학의 살 길은 정치라고 주장한 ‘정치유학’이라는 수사가 등장했고, 유교의 정신과 현정을 결합해야 한다는 ‘유교현정’론도 대두되었다. 조화사회론이 등장했을 때 몇몇 중국철학 연구자들은 전통 유교사상 내에서 조화사회론과 연관이 될 만한 것을 찾기에 바빴다. 이처럼 90년대부터 유교적 지식인들은 유교에서 중국의 자의식을 다지지는 데 열중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화의 결합을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부르짖던 80년대 ‘중국문화서원’의 바람이 더욱 활발하게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인의 자의식을 고취하는 데 동원된 서양 지식은 포스트식민주의이다. 포스트식민주의는 1993년부터 소개되고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제국주의』가 번역되면서

점차 성장했다. 이들은 우선 거대서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문정신 논자들에 맞섰고 공공담론의 허망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중국의 포스트식민주의자들은 ‘근대성에서 중화성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포스트식민주의의 방향을 민족주의로 비틀게 된다. 선언을 한 사람들은 장파(張法)·장이우(張頤武)·왕이촨(王一川) 등이다. 이 선언에서 이들은 서구 근대성과 계몽담론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한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성취를 긍정하는 기반 위에서 90년대를 80년대와 상대화시키면서 사회의 시장화, 심미의 세속화, 문화 가치의 다원화가 계몽담론의 권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서양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지식의 형태를 ‘중화성’이라 명명하고 그 속성으로 인류성과 다원성을 지목한다. 결국 포스트식민주의의 중화성 기획은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실질은 80년대식 계몽담론을 부정하고 시장질서를 긍정하는 다원주의를 내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넓게 보면 서양을 반대하고자 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만든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긍정하면서 여기서 탄생하는 인류성을 위해 중화성을 찾은 데 불과했다.

전통지식이든 포스트식민주의든 1990년대 중국의 자의식 확장을 내세운 지식들은 결국 현실에서 진행되는 체제전환을 긍정하는 전제 위에서 중화의 자리를 확립하고 이름을 빛내려는 기획을 이루었다.

4. 2000년 이후: 중국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1) 문화로 시대를 읽는다: 비판적 문화연구

21세기에 들어서서 지식인들은 더욱 심화된 자본의 침투, 부상하는 중국에 조용하는 행보를 보인다. 우선 자본이 깊숙이 침투한 중국사회를 독해하고자 하려는 흐름으로 눈에 띄는 것은 ‘비판적 문화연구’이다. 90년대에 본격화한 체제개혁에 대한 논쟁에서 동원된 지식들은 주로 역사학·정치학·경제학에 속했다. 그런데 이제 더욱 시장화가 심화된 사회를 읽는 방법으로 ‘문화’가 새롭게 호출된 것이다. 중국 문화연구의 대표주자는 인문정신 논쟁을 촉발시켰던 상하이대의 왕샤오밍과 본래 중국 영화를 연구했던 베이징대 중문과의 다이진화(戴錦華, 1959~)이다. ‘비판적 문화연구’는 영국 버밍엄학파가 현실개입의 힘을 잃어가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하고자 탄생된 연구다. 여기에 관심을 갖던 중국 지식인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문화연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2000년에 ‘문화연구 선언’ 격의 글에서 문화연구의 당위를 주장한 바 있다.⁴⁾ 그는 포스트 마오쩌둥시대 중국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라 하며 그것을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야만 중국의 현재적 정체성, 현재 중국의 사회계층의 구조와 갈등, 중국의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각종 추상적 이론 작업은 물론 영화, 가요 등 유형의 문화상품, 술집·카페 등 문화설비, 문화관리 체계, 특정한 문화현상 등을 꼽는다. 왕샤오밍은 이것을 제대로 분석할 때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가리고 있는 면들 드러냄으로써 현실에 시의적절하고 유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王曉明, 2000) 다이진화 역시 민족주의의 서사가 많은 내부 모순을 은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타고 온 자본의 논리가 ‘문화’의 배후에 있으며 문화연구를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 체제를 극복하고 마련되는 대안 역시 ‘문화’라 칭하며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시장사회 분석과 문화연구의 결실로 제시하고 있

다.(戴錦華, 2006) 문화연구자들에 의해 문화는 사회의 제 영역 중 하나가 아닌 사회의 구조와 현상을 대체하는 개념이 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화는 필연적으로 대안마련의 통로로도 제기되고 있다.

2) 중국경험에서 중국모델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석도 진전된 형태로 나타났다. 본래 사회주의 혁명기부터 중국은 배워온 내용들을 토양에 맞게 개종해왔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다른 마오쩌둥의 집권과정에서 보인 농민 중심성, 마오쩌둥 사상과 유교의 친연성, 중국특색사회주의, 향진기업론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체제전환 노선은 ‘중국 경험’이라는 범주에서 많이 설명되어 왔다. 중국 부상의 성공이 해외에서도 인정되면서 경험의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2004년 5월에 골드만삭스 정치경제 문제 고문이자 중국 칭화 대학교 겸임교수 조슈아 라모(Joshua Cooper Ramo)는 「중국은 이미 자신의 경제적 컨센서스를 발견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베이징 컨센서스’란 사회주의라는 방향,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목표, 개혁과 혁신이라는 동력, 인본 실천이라는 이념 등 중국적 특색을 가진 발전모델이다. 이런 개념 정의와 함께 조슈아 라모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와 다르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왕단, 2013, 498~499) 중국의 경험을 모델로 격상시킨 최근의 대표적인 논의는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판웨이(潘維) ‘중국모델’론이다. 그가 말하는 중국모델론이란 관민일체의 ‘사직(社稷)’사회 모델, 더 구체적으로는 정당이 민중을 대표해서 집권하는 ‘민본’정치모델,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국민’경제모델이다. 한편 야오양(姚洋)은 중국모델의 네 가지 특징으로 중성정부, 재정분권, 새로운 민주화의 길, 실무주의 정당을 꼽고, 장웨이웨이(張維爲)는 중국이 성공한 배경으로 민생을 중요시한 것, 정부가 필수적인 선물이란 점, 좋은 정부가 민주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 정치적 성과의 합법성 등에 여덟 가지 경험을 꼽았다.(쉬지린, 2013, 494) 이상의 갖가지 모델 담론들은 정부가 주체가 된 정치경제 체제를 긍정·일반화하고 있다. 결국 서양과는 다른 중국만의 길은 정부주도형이라는 말이며 그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는 이것을 더 확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3) 중국문화의 길을 찾아서: 중국문화포럼

마지막으로 중국지식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집단을 살펴보겠다. ‘중국문화포럼’(中國文化論壇, 이하 ‘포럼’)이 그것이다. ‘포럼’은 2004년에 홍콩 자본의 후원으로 결성되었다. ‘포럼’ 이사장은 전 삼련서점 사장 동슈위(董秀玉, 1941~)이고 이사진에는 간양·왕후이·왕샤오밍·황핑(黃平)·왕사오광·주쭈리(朱蘇力)·천라이 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80,90년대 중국지식계에서 활약하며 성장한 지식인들이다. 80년대 신진 지식인이었던 이들은 이제 대부분 대학에서 연구·교육기관을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있다. 그리고 ‘중국문화’라는 이름을 건 그룹으로 모인 것이다. ‘포럼’은 설립취지를 중국이 전지구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만의 방식으로 세계화에 대처하며 더 나아가 오랜 문명국가인 중국이 세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다. 지식인들의 이런 선언은 중국이 19세기 중반부터 이어져 온 생존이란 과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중국의 전망을 세계사 속의 전망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주하게 서양을 배우던

중국이 이제 다시 학생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미래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기조 위에서 ‘포럼’은 2006년부터 매년 여름 포럼을 열어왔다. 주제는 각각 중국대학의 인문교육, 향토중국, 공자와 현대, 개혁개방 30년 중국의 인문사회과학, 5.4시기 중국의 서학, 중국의 지속가능성, 드라마 등 중국의 역사와 문화, 학문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대학생의 교양 향상과 교양발전을 위한 대학공통 교양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동서양 주요 고전에 대한 강독과 토론이 진행되며, 첸리췌를 비롯한 학계의 권위자들이 강사로 강단에 선다. 포럼 일정과 연동되어 개최되는 이 워크숍에는 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국의 대학 교원, 대학원생으로 성황을 이룬다. 대형 강의실에서 에어컨도 켜지 않고 뜨거운 차를 들이키며 열중하는 강연장의 열기는 대륙의 한여름보다 더 뜨겁다. 매년 포럼과 워크숍을 주관하는 간양 자신도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 대한 주체적인 재해석에 열중했다. 그 결과 오랜 문명국인 중국은 이제 세계사에 모범이 되는 ‘문명-국가’가 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세계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왕후이도 중국 부상의 경험을 자주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논란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반박도 있다. 중국 자체의 경험, 중국모델에 역점을 두는 흐름을 쉬지 않은 ‘역사주의’라 비판하며 중국은 특수한 길이 아닌 보편의 길을 추구해야 하며 그것은 이성적 계몽에 바탕을 두고 보편성을 띤 ‘문명’의 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현대 중국과 지식인의 동행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의 지식계는 ‘해빙’을 맞았다. 80년대 지식인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마르크스주의 대신 전통과 서양학술을 찾아 나서서 중국을 ‘비극’에 빠뜨린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민주화의 열망도 높았지만 끝내 좌절했다. 90년대의 지식인은 초반에 재빠르게 80년대의 실패를 딛고 새로 일어설 준비를 했다. 국가의 시장화가 심화된 국면에서는 문화적 측면에서는 인문정신 논쟁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자신들이 수호해야 할 가치를 고민했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차원에서는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며 대립했다. 80년대에 복권된 전통은 원로학자들의 주도와 국가의 지원 아래 부흥했으며 공자는 국가의 브랜드가 되었다. 한편 서양중심주의를 비판한 탈식민주의는 중화성에 탐닉하는 한편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긍정하고 만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이론의 수입은 지속되었다. 서양의 ‘문화연구’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침투에 대한 해석의 통로로 수용되었다. 중국의 성취에 대한 자신감은 중국의 경험을 모델로 격상시켰다. 그런데 80년대의 신권위주의의 바람대로 89년의 좌절 이후 그 모델에서 민주주의는 고스란히 빠져있다. 80년대에 성장한 유력 지식인들은 한 데 모여 중국만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0년 여 중국 지식인 집단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성장과 갈등, 부상과 발걸음을 같이하며 변천해왔다. 중국은 자신보다 이제 앞선 나라를 배우던 처지에서 점점 벗어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만든 것을 과시하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과거제 폐지 이후 정치권력의 주변으로 밀려났고 근대 민족국가 건설기에 시련을 겪은 중국 지식인도 이제는 국가적 과제를 온 몸으로 떠안고 국가의 정체성과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설명하는 자리에 다시 서있다.

참고문헌

- 김수영, 2012,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가이데올로기 형성과 대학의 역할 - ‘국학’ 담론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77집.
- 송인재, 2008, 「1980년대 중국의 문화의식에 대한 재조명 - 甘陽의 전통·현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55집.
- 송인재, 2010,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에서 ‘문화’ 담론의 지형」, 『현대중국연구』 제11집 2호.
- 쉬지린 지음, 송인재 옮김, 2013,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 파주: 글항아리.
- 옌안성 지음, 한영혜 옮김, 2005, 『신산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 일조각.
- 왕단 지음, 송인재 옮김, 2013, 『왕단의 중국현대사』, 서울: 동아시아.
- 왕차오화, 2006, 「서문:90년대 중국사상계의 정신」, 장영석, 안치영 옮김, 『고뇌하는 중국: 현대 중국 지식인의 담론과 중국 현실』, 서울: 도서출판 길.
- 왕후이, 2003, 「나의 사상역정」, 이옥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파주: 창비.
- 이철승, 2006, 「현대 중국사상계에 나타난 ‘중국학열’과 신증화사상」, 『중국학보』 제56집.
- 임우경, 2001, 「세기말 중국 사상계의 분화 -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원우론집』 31.
- 조경란, 1997, 「해외 지식인과의 대화: 중국 지식인의 학문적 고뇌와 21세기의 동아시아」, 『역사비평』 1997년 가을호.
- 조경란, 2008, 「왕후이와의 인터뷰 - 현대성의 패러독스, 사회주의의 경험, 현 중국 지식계의 독법」, 『현대 중국 사상과 동아시아』, 파주: 대학사.
- 甘陽 主編, 1987, 『文化: 中國與世界』 第4輯.
- 甘陽, 1997, 「反民主的自由主義還是民主的自由主義?」, 『二十一世紀』 1997年 2月號, 香港中文大學中國文化研究所.
- 甘陽, 2000, 「中國自由左派的由來」, 公羊 主編, 2003, 『思潮: 中國“新左派”及其影響』,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劉青峰, 2000, 「十年回眸」, 『二十一世紀』 2000年 10月號.
- 毛澤東, 1942, 「整頓黨的作風」,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6, 『毛澤東選集』 3卷.
- 王倪, 1999, 「1997~98年大陸學術譯書選評」, 『二十一世紀』 1999年 6月號.
- 王曉明, 1996, 『人文精神尋思錄』, 上海: 文滙出版社.
- 王曉明, 2000, 「九十年代與“新意識形態”」, 『天涯』 2000年 第6期.
- 汪暉, 1998, 「當代中國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 『文藝爭鳴』 1998年 6期.
- 汪暉, 2000, 「小小十年: 『二十一世紀』與『學人』」, 『二十一世紀』 2000年 10月號.
- 恩斯特·卡西爾/ 甘陽 譯, 1985, 『人論』, 上海: 上海譯文出版社.
- 張岱年·程宜山, 2006, 『中國文化爭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周揚, 1983, 「關於馬克思主義的幾個問題的探討」, 『人民日報』 1983年 3월 16일자. 賀桂梅, 2005, 「80年代人道主義思潮“個人”觀念之辨析」, <http://www.cul-studies.com/Article/theory/200504/1056.html> (검색일: 2008년 7월 16일).
- 朱學勤, 1998, 「一九九八年自由主義學理的言說」, 羅崗·倪文尖 編, 『90年代思想文選』 第二卷,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 陳來, 1986, 「思想出路的三動向」, 甘陽 主編, 2006, 『八十年代文化意識』, 上海: 上海人民出

版社.

<http://zh.wikipedia.org/wiki/走向未來>(검색일: 2009년 1월 8일).

中國文化論壇, <http://www.forum1.cn>

- 1) 이런 현상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전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더 심했다.
- 2) 문화열은 한국에 1992년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문화열의 중심 문제의식을 ‘전통과 현대화’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문화열을 이론 이론적 경향을 “유학부흥”, “비판계승”, “서체중용”, “철저재건”의 네 부류로 구분했다. 이런 구분법의 연원은 『광명일보(光明日報)』 1988년 12월 12일자와 26일자의 철학동향 특집기사이다. 이것이 일본의 중국철학 연구자 아즈마주지(吾妻重二)를 거쳐 한국에까지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이 분류법은 문화열의 구도를 전통과 현대의 구도로 단순화하고 여기서 ‘중국문화서원’에서 나온 견해들을 확대하고, ‘미래를 향하여’와 ‘문화: 중국과 세계’ 그룹의 차이를 외면하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문화열을 이론 지식인 그룹을 실물적 차원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하는 분류법을 채택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규명과 논의는 송인재, 2008, 「1980년대 중국의 문화의식에 대한 재조명 - 甘陽의 전통·현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55집 참조.
- 3) 이 글은 이듬해인 98년에 『文藝爭鳴』에 게재되었다. 그 후 그 중요성을 증명하듯 90년대 중국지식인의 글을 모은 갖가지 단행본에 단골로 실렸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 글의 초안은 1994년 한국의 『창작과 비평』에 「중국사회주의와 근대성 문제: 개방 이후의 사상조류」라는 제목으로 먼저 발표되었다. 그 후 정식판은 『당대비평』 10호와 11호에 「세계화 속의 중국, 자기 변혁의 추구: 근대와 근대 비판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번역·연재되었다. 이후 汪暉, 『死火重溫』(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의 번역본인 김택규 역, 『죽은 불 다시 살아나』(서울: 삼인, 2005)와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시리즈의 하나로 왕후이와의 대담과 왕후이의 사상영역에 대한 소개 글과 대표작을 모아 번역한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이옥연 외 옮김, 2003, 파주: 창비)에도 수록되었다.
- 4) 왕샤오밍의 글은 인터넷에도 다른 제목으로 게재되며 널리 읽혔다. 王曉明, 「瀕臨“大時代”的中國」, <http://www.forum1.cn/show.aspx?id=313&cid=161>(검색일: 2008년 8월 4일) 대조해 보면 『天涯』의 글에는 일부내용이 첨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는 王曉明, 「‘대시대’가 임박한 중국 - 문화 연구 선언」, 汪暉 외/ 장영석·안치영 옮김, 『고려하는 중국』(서울: 도서출판 길, 2006)으로 소개되었다.